

◆머느리곶씨 열전 26

쌍벽당, 종부 권현일 (광산 김씨, 종손 김선술의 妻)복야공파 33세, 두광계 권진사댁 종손 권철연의 여女, 독립지사 권상경의 매妹

쌍벽당 소나무(학문),대나무(청빈)와 춘양의 권진사댁(성암고택)

쌍벽당(雙壁堂)은 경상북도 봉화군 거촌리에 위치한 고택(국가문화유산)으로, 조선 연산군 시기의 성리학자 김언구(金彦球, ?~1509)를 기리기 위해 1566년에 건립되었다. 김언구의 호는 쌍벽당이며 쌍벽이란 송죽(松竹)에서 유래하였는데, 소나무와 대나무를 뜻하는 송죽은 그가 청빈한 삶과 학문을 중시했음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 현재 94세의 종손 김두순(金斗淳, 1933~)옹이 부인과 함께 홀로 이 건물을 지키고 있다. 그 자서전을 보던 중 선생의 어머니가 안동권씨이고 인근 춘양면의 권진사댁 종손 진사 권철연(1874~1951)의 따님인 권현일(1914~1950)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권진사댁은 본기자가 수년간 만난 종손 권탄웅(1943~2024)옹과 대화에서 같은 서울 소재 고교동문이고 또 원래 권벌(달실마을)선생의 종손(권종묵)과도 같은 동창으로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쌍벽당의 주인 김두순옹도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사람재는 김개현(鑑開軒)현판. 앞에 권상경의 독립표창을 크게 붙여 놓았다. 전체적으로 명목 고택으로 내부를 현대식으로 고쳐 복원할 수 있다. ☎054)672-6118

봉화 의양리 권진사댁(奉花 宜陽里 權進士宅)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낙전당길 39에 위치한 조선시대 가옥이다. 이 가옥은 유적건조물 중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으로 분류되며,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4월 8일에 경북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집은 성암 권철연(1874~1951)이 살던 곳으로, 그의 아버지가 1880년경 건립한 것이다. 권철연은 조선 고종 17년(1880)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며, 문인과 애국지사들이 자주 이 집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현일(權賢日), 젊은나이에 벌써 했으나 3남2녀는 훌륭하게 되었고 그 후손은 고손자까지 나왔고 그 자식들도 이제 둘만 이 세상에 남았다. 무심한 세월에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녀는 남아있다.

사진 김두순 자서전에서 발췌

권진사댁 권상경과 파리장서운동

그리고 권현일의 오빠는 바로 파리장서사건으로 유명한 권상경(權相經, 1890~1958)이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 200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이다. 그는 조선 명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권벌의 13대손으로, 1890년 9월 21일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서 태어났다.

1925년, 김창숙이 무장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을 모금하던 중 권상경을 찾아왔고, 권상경은 이에 호응하여 1,000원의 군자금을 제공했다. 이 일로 그는 1926년 5월 9일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이후 출옥하여 은거하다가 1958년 7월 15일 별세했다.

그의 공적은 2005년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으며, 묘소는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윤곡마을에 위치해 있다.

총재 권벌의 달실마을

권벌(權穰, 1478~1548)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환정(萱亭)·송정(松亭)이다. 1478년 경상북도 안동 북후면 도촌리에서 태어나, 조선의 중앙정계와 학문계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1496년 진사시에 급제하고, 1507년 문과에 급제한 뒤 사헌부 지평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병조판서와 원상(院相)을 지냈고, 인종 즉위 후에는 김원군(吉原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대표적인 사화인 기묘사화(1519)와 을사사화(1545)에 연루되어 두 차례 유배를 당했고, 끝내 1548년 평안도 삭주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삶은 정치적 시련 속에서도 학문과 도덕적 절개를 지켜낸 사대부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유학자로서도 명성이 높았으며, 그의 문집인 “총재집”에는 풍부한 학문적 성과가 담겨 있다. 특히 예문관검열과 도승지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기를 남긴 “총재일기”는 보물 제26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중기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봉화 달실마을, 달실(酉谷), 금계모란형이라 하여 '달'이나 넓은 들의 '달(達)'이 맞다고도 하고 실제 현지인은 '달실'이라 하지만, 사투리로 달을 달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달실마을(酉谷)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위치한 이중환의 “택리지”에 안동 하회마을, 천전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영남 4대 길지로 언급된 전통 마을이다. 조선 중종 때 문신 권벌이 기묘사화로 파직된 후 외가가 있는 이곳에 정착하면서 안동권씨 집성촌으로 형성되었다. 마을은 앞에 개울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량이 풍부해 농사에 적합하다.

이렇듯 총재 권벌의 달실마을, 그 후손인 파리장서운동의 핵심지역 춘양의 권진사댁, 그리고 거촌리 쌍벽당의 인연은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봉화(奉承王化)는 매우 화합적인 지역이다. 모든 걸 접고 은일한 삶을 위해 외지에서 입입된 거족들이 많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고 화합하면서, 고래로 정치적인 문제로 극단적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형은 복인, 동생은 남인이고 또 다같은 권력의 희생자이기도 하니 그런 측면이 있고, 산골에서 양반이나 상민이나 다 그렇고 그런 팍팍한 삶이니 그런 면도 있다. 해방 전후 좌우의 대립에서도 희생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100만 光金의 격월간 잡지,총친회 중에서도 이 정도의 격월간지를 내는 곳도 드물다.

광산김씨 그 대단한 내력

광산 김씨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시조인 김홍광은 통일신라 말기에 금성을 떠나 현재의 담양군 평장리에 은거하였고, 그의 손자 김길이가 고려 태조에 귀의하여 무공을 세운 뒤 광산부원군에 봉해졌다. 이후 후손들은 조부의 작호이자 세거지였던 '광산'을 본관으로 삼아 가계를 이어왔다.

시조의 선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현감왕 또는 신무왕의 아들로 전해지지만, 정확한 왕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야사에서는 고구려 출신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로 명망이 높은 김장생과 김집 부자, 정치가로 활약한 김만기·김만중 형제, 숙종의 정비인 인경왕후 등을 배출하여 문벌귀족으로 성장했다.

광산 김씨는 조선시대에 정승 5명, 대제학 8명, 정백리 4명, 왕비 1명 등 많은 인물을 배출했으며, 문과 갑과 장원급제자 12명, 문과 급제자 263명, 무과 급제자 276명 등 뛰어난 과거 합격자들도 많았다.

현대에 들어서도 김해 김씨, 경주 김씨에 이어 김씨 본관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주로 전라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렬 체계를 철저히 지키는 성씨로도 알려져 있으며, 특히 38세 용(蓉), 39세 중(中), 40세 선(善) 한렬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렬자는 세대를 표시하는 데 활용되며, 일부 지역(제주 등)에서는 기준보다 2~3세 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영수증(현금영수증)과 계약서 등에 대한 세무상식 ③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추밀공파 35세·상덕회계법인대표

IV.기타 영수증에 준하는 서류(계약서)

위에서 설명한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체결되는 각종 계약서의 종류, 주요 내용, 법률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의 개념

① 계약서란 두 당사자 이상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②민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책임소재와 권리관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개인 간 및 개인과 공공기관 간 계약서 주요 유형

① 부동산 관련 계약서

종류	설명	주요 내용	법적 책임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수/매도 시 체결	거래금액, 대금 지급일, 등기 이전일	소유권 이전, 손해배상,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관리비, 원상복구	임대인의 의무(주거 제공), 임차인의 의무(임대료 지급) 등
전세 계약서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기간, 반환 조건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

② 금전 관련 계약서

종류	설명	주요 내용	법적 책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	원금, 이자율, 상환기한, 연체이자	상환의무,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
연대보증계약서	제3자가 채무 변제를 보증	보증범위, 보증기간	주채무자 변제불능 시 보증인의 책임

③ 근로 및 용역 계약서

종류	설명	주요 내용	법적 책임
근로계약서	고용계약 체결 시 사용	임금, 근무시간, 퇴직금, 휴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제공 의무, 근로자의 업무 성실 이행 의무
프리랜서 계약서	독립계약자와 체결	용역 범위, 보수, 납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용역계약서	특정 업무를 외주로 맡길 때	업무 내용, 금액, 납기, 위약 사항	

④ 매매·위임·기타 계약서

종류	설명	주요 내용	법적 책임
동산 매매계약서	자동차, 기계 등 물건 거래	대상물, 대금, 인도시기	물건 인도, 대금 지급 의무
위임계약서	특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때	위임 범위, 보수	위임인의 비용 지급,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 의무
양도양수계약서	권리·의무 이전	계약 대상, 양도 대가	권리 이전 의무, 양수인의 대가 지급

⑤ 공공기관 관련 계약서

종류	설명	주요 내용	법적 책임
민원협약서	주민·기관 간 시설 제공 등 합의	설치 장소, 책임 소재	위반 시 행정소송 대상 가능
보조금 지원 약정서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 시 체결	사용용도, 정산 방법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 가능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 항목,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무단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3. 계약서 체결 시 법적 책임과 의무

항목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의무 불이행 시 책임 발생
계약 해제 및 해지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위약금 조항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약정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시 가능
이행보증	계약불이행에 대비한 보증금이나 연대보증 요구 가능
강행법규 우선	사적 계약이라도 법률(근로기준법, 임대차보호법 등)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

(다음호에 계속)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3장 뿌리에 대하여

2. 다물(多勿)

온고이지신가이위사(溫故而知新可而爲師)이라 하지 않는가?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編)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옛것을 익혀 알고 새로운 것을 알면 가히 남의 스승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 이제 이 아사아의 동편의 역사를 바로 알면, 시세말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주역은 반드시 우리 한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미 UN의 총수가 대한민국인 이 아니던가! 다시 말하지만 그 조상의 얼을 알아야 정신이 바로 차있는 사람(정신 차린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둘째로, 우리 한민족은 최초의 개국부터 섬기던 신(神)이 있었다. 우리는 그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앞에서 말했다. 낫과 밭을 주관하고, 산천조목을 자라게 하며 땅과 하늘, 물 속의 모든 생명체의 호흡과 생명과 그 순환의 세미한 부분까지 설계하고, 창조한 자연의 신, 그 분은 오직 한 분만 계시기에, 즉 저 하늘, 다시 말해서 그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전지전능(全知全能), 무소부재(無所不在)의 힘(능력, 에너지, 기, 우리에게 정신을 넣은 그 분)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단군성조 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역대의 모든 왕들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천단(天壇)에 올라가 국대민안을 발원(發願)하였음이라. 지금도 태백산과 마니산에 제천단(祭天壇)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 어찌 한민족이



“하늘(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민족이 아니었다고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바로 아는 것이 다물(多勿)정신의 회복인 것이다.

우리는 그간에 이 하나님을

있고 살아왔다는 말이다. 이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들의 얼로 감사해야 할 때이다.

셋째로, 우리 한민족에게는 인류 최초로 경전(經典)이 있었다. 우선 경전(경전)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가 보자. 경(經)자는 가는 실 사(絲)와 물줄기 경(逕) 자가 합친 것으로 글 경(經)이라고 읽는다. 성경(聖經), 불경(佛經), 도덕경(道德經)도 같은 뜻이다. 이는 글을 통하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성현의 가르침을 후대로 이어 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 삶의 교과서(Text)이다. 우리 선조들이 그 옛날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고 익혔던 경전은 온 우주(宇宙)의 진리가 담긴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모화사상(慕華思想)에 젖어 있어 참으로 귀중한 보화를 묻어 두고 지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참 가르침의 도(眞理)”를 익히고 소중히 여겨 우리 후손들의 얼 속에 심어야 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그 경전의 이름은 바로 천부경(天符經)이다. 더불어 이 ‘천부경’의 해설서로 두 권이 더 있는데, 그 하나는 ‘삼일신고(三一神誥)’, 다른 하나는 참전계경(參修戒經)이다. 이 세 권이 우리민족의 얼을 담은 민족정신 교과서이다.

넷째로, 우리 한민족의 고대(古代) 사서(史書)들을 조금만 세심히 읽어 깨달아 보면 한민족의 문명의 시원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중국의 글자, 즉 한자와 한문과 원래는 우주적 진리이지만 동양사상의 핵심인 태극, 음양오



행, 주역 등이 우리민족에서 출발하여 중국, 일본으로 전하여졌음에도, 마치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일본으로 전해진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쓰는 한자도 우리 한민족(東夷族)의 갑골문자에서 비롯된 사실적인 한민족의 언어를 바탕으로 된 것을 중국의 학자들도 시인하고 있다. 중국 문학가 임여담(林語堂)선생도 한자는 동이족이 만든 것이며, 공자도 동이족이라고 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도 그 도적놈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니면 설명 알아도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때문에, 모른 척 하는지...

어찌되었던 이제부터 우리 위대한 한민족이여!

민족정신 다물(多勿)정신을 다스린 다음 되찾아서 북방의 오랑캐의 자손들과 현해탄 너머의 왜구의 후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저들의 것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찬란했던 문화에 더 이상 흠집을 내지 못하게 안으로 우리의 민족혼을 깨워야 할 때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우리의 세계사의 뒷면에 가리워졌던 찬란한 민족혼을 다시금 꽃피워서 그 향기를 지구촌 곳곳마다 퍼뜨려서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실로 감사하는 한국인 되기를 부탁 올린다.

3. 종교

세계사를 보면 어느 민족이나 부족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는 신앙(信仰)이라는 형태로 믿는 종교(宗教)가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다. 종교란 말의 어원(語源)을 살펴보면 영어로는 Religion, 라틴어로는 Religio로 ‘인간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그것을 표현하는 의례행위이다’로 정의된다. 한자어의 종(宗)자는 마루 종 자(字)로 ‘어떤 것의 근본이나 가장 큰 우두머리 또는 으뜸을 의미한다’. 기실 이 마루 종(宗)자는 제사의 장소(제단)을 형상화 한 글자이다. 간단히 말해서 영어의 Religion은 ‘신(god)을 경외(敬畏)한다’이고, 한자의 종교(宗教)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깨우침’을 말한다.

원시신앙의 대상은 땅의 동식물이나 아니면 바위나 폭포, 무성물을 포함한 자연현상들, 하늘의 일월성신(一月星辰), 바다의 용왕 등이 있었다. 아니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존재한다.

이러한 자연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신앙형태를 토테미즘(Totemism), 애니미즘(Animism), 마나리즘(Manaism)이라 부른다. 신앙이란 처음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출발한다. 이렇게 기초가 형성되다가 그 차원과 문명의 발달로 점차 진화하여 다신 숭배(多神崇拜) 사상은 유일신(唯一神) 개념으로 통합 발전한다.

기독교의 ‘야훼(여호와)’, 이슬람의 ‘알라’,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유일신사상에도 그 차이점은 있다. 야훼나 알라신의 유일신 개념과 우리 민족의 유일신 개념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나 이슬람의 개념은 ‘유일신은 오직 여호와로서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큰 힘을 손에 쥐고있고, 그 관계는 언제나 주종(主從)에 있다. 그래서 그 주권에 손톱만큼의 의심이나 도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경죄(不敬罪)로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이며, 이는 내세에도 천당과 지옥이라는 양분된 개념을 놓고 섬기는 자들의 행위와 결단에 따라서 결정

지워 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이 섬겼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슬플 때는 같이 울고, 기쁠 때는 같이 웃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존재자이다. 단지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 실존이 가리워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민족정전은 이 사실을 가르침으로 삼았다.

서양의 철학은 양극성이나 이원론(Dualism)을 주장해 왔다. 가령, 선과 악, 미와 추, 나와 너로, 몸과 영혼으로 구분되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곧 정보의 대상이었다. 거기에 저들의 종교가 큰 영향을 끼쳤다. 서양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종교가 있었다. 그 하나는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 一敎,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로 유일신 아후라 마르다. Ahura Mazda를 믿는 종교로 오늘날의 이란의 동북부로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전파된 선과 악의 유일신 사상)였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였다.

조로아스터교는 B.C. 12세기경 페르시아에서 발생하여 성행하다가 A.D. 7세기경 이슬람교가 대두하면서 쇠퇴하였다.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탄생은 물론 인류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종교의 교조 조로아스터(본명은 짜라투스투라이며 조로아스터는 그리스식 발음)는 지난 3,000년간 동서양을 지배했던 부정성 이원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그는 경전 아베스타(Avesta), 야스나(Yasna)에서 세상을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의 전쟁터라고 묘사했다. 조로아스터교의 선악론(이원론)의 특징은 농경문화는 선으로, 유목문화는 악으로 설정한 것이다.

“선한 사람은 농사를 지으며 악한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오! 마즈다, 창조신이며, 농부아님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도 이 종교에 참여할 자리가 없나이다”(세계종교사, J.B 노스, 윤이름역 170p)

(다음호에 계속)